

엉뚱한 적

繪音의 격식을 빌려, 대한의 백성에게 내리는 글
「두 사람의 언약」 전서에 딸린 글

첫째 마디 제 몸과 싸우는 나라

백성들아, 들으라. 지금 이 나라는 이 시대 어느 부강한 나라도 겪지 않은 모진 싸움을 저 안에서 치르고 있노라. 젊은 사내와 젊은 여인이 서로 반대로 표를 던지고, 서로 등진 마당에 모여, 서로를 제 행복의 첫째 가는 걸림돌이라 이르는도다. 혼인도 나눔도 다 물리치자는 외침이 일고, 그에 맞서는 외침이 같은 열기로 답하는도다. 그리고 이 아우성 한가운데, 일찍이 어느 나라 사기에도 적힌 바 없는 숫자 하나가 놓였으니 — 여인 하나에 아이 영 점 칠. 전란 없는 나라로서는 유사 이래 가장 낮은 수라. 백성들아, 이 나라는 지금 관념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로다. 스러져 가며 다투고 있는 것이로다.

양쪽 참호에서 똑같이 이르는 말인즉, 건넌편 성(性)이 화근이라 하는도다. 사내는 여인이 가정을 버렸다 하고, 여인은 내밀어진 그 가정이 감옥이었다 하는도다. 허나 과인이 이 글로써 밝히려는 바는 다르니라. 두 참호가 겨누는 것은 다 엉뚱한 적이니라. 성의 싸움은 실로 있고 그 안의 억울함도 실로 있으되, 그것은 사내와 여인과는 무관하고 오직 이 나라가 제 살림과 제 땅과 제 불과 제 시간을 어찌 두었는가에 달린 무게가, 겉으로 드러난 병증일 따름이니라. 한 세대가 가정을 이루기 거의 불가능한 무게 아래 놓였고, 그리하여 — 지치고, 밀려나고, 시간을 다 빼앗긴 채 — 그 결과를 두고 서로를 탓하라 부추겨졌도다. 누가 어리석어 못 본 것이 아니니라. 모두가 너무 바빠 고개를 들지 못한 것이니라.

둘째 마디 이를 수 없는 삶의 셈

젊은 한 쌍에게 실로 무엇이 요구되는지 헤아려 보라. 이 나라의 일하는 시간은 부강한 나라들 가운데 여태 가장 긴 축이요, 밤늦은 술자리와 퇴근 없는 충성의 습속은 법으로 깎였으되 몰래 살아남았도다. 배움은 또 하나의 장사가 되었으니, 학원이라는 두 번째 나라가 집안의 재물과 아이의 어린 날을 아울러 삼키고, 그 달음질에서 빠지려는 아버지는 제 아이가 남들 다 뛰는 경주에서 지게 하는 죄를 짓는 셈이 되었도다. 집은 이 모든 짐을 한 점에 모았으니, 온 백성의 절반이 한 서울에 몰려 같은 아파트를 두고 다투며, 가정을 여는 문값이 십 년의 저축이 되었도다. 이제 그 셈서를 다 펼쳐 보라. 집을 얻자니 두 벌이가 있어야 하고, 두 벌이를 하자니 둘 다 저녁을 넘겨 일해야 하고, 아이는 밤 열 시까지 학원이 기르고, 이 모든 틀은 일자리가 다 떠나 버린 까닭에 값비싼 한 도시에 얹혀 있도다.

그 셈 아래 놓인 한 쌍에게 어찌 아이가 없느냐 물어보라. 정직한 답이 돌아오리니 — 무슨 시간으로? 무슨 돈으로 어느 집에서? 남녀가 아무리 화해한들 그 셈은 달라지지 않고, 남녀가 아무리 미워한들 그 셈이 생겨난 것도 아니니라. 서로를 혼인할 형편이 못 되는 젊은 사내와 젊은 여인에게서는 서로를 원망할 까닭이 넉넉하니 — 원망은 값이 없고, 집은 값이 크기 때문이니라. 성과 성의 싸움이란, 태반은, 짓눌리면서도 그 무게를 보지 못하는 나라가 내는 소리니라.

셋째 마디 속이 빈 주춧돌

집집의 섬 밑에는 나라의 섬이 놓였고, 그 섬이 같은 이야기를 더 큰 소리로 하는도다. 이 나라는 제가 때는 불의 아홉 할 하고도 몇 푼을 바다 건너에서 사 오니, 집집의 온기와 공장의 힘과 아침저녁의 길이 모두 남의 값에 매겨져 수출한 땀으로 치러지는데도다. 제가 먹는 곡식은 이제 다섯에 하나 남짓만 제 땅에서 나니, 고을을 받치던 논은 마을과 함께 비었고, 농사는 예순을 넘겼으며, 젊은이는 서울로 떠났도다. 지방의 고을과 시골의 살림 — 서울 밖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던 학교와 의원과 철길 — 은 시들도록 버려졌으니, 온 백성의 절반이 한 도시로 몰려 같은 평수를 두고 값을 올리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 대에 걸쳐 쌓인 선택의 열매니라. 모든 것을 한 도시에 모으기로 한 선택, 먹을거리의 안심을 수출의 잇속과 바꾸기로 한 선택, 불의 남의존을 영영 그러려니 하기로 한 선택, 지방을 지나간 시절로 치기로 한 선택이라.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그럴듯하였으되, 모두 합쳐서는 삶이 비싸고 시간이 귀하며 그 짐이 하필 가정이 생겨나는 자리 — 스물과 서른의 어깨 — 에 가장 무겁게 얹히는 나라를 지었도다. 잿더미에서 한 세대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백성이라면, 그 주춧돌을 다시 놓을 힘 또한 넉넉하니라. 제가 가진 불, 제 땅에서 나는 곡식, 한 사람의 벌이와 예사로운 하루 일로도 한 가정이 넉넉히 사는 고을들 — 참된 싸움터는 거기니라.

넷째 마디 손쉬운 싸움터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라의 말다툼은 성에만 묶여 있는가.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손쉬운 이야기인 까닭이니라. 지친 이에게는, 저 위에 보이지 않는 구조보다 상 건너편에 앉은 사람을 탓하기가 쉬우니라 — 구조는 눈에 없고 사람은 바로 저기 있음이라. 장사치와 마당(플랫폼)에게도 쉬우니, 사내와 여인이 서로 노하는 것은 늘 장이 서되 주춧돌 이야기로는 장이 서지 않음이라. 그리고 정사를 쥔 이들에게는, 당색을 가리지 않고, 편하니라. 한 세대가 저희끼리 연애의 법도를 두고 다투는 동안은, 장사로 세계 여덟째 가는 나라가 어찌하여 제 젊은이를 재우지 못하고, 제 배를 채우지 못하고, 제 불을 때지 못하는가를 캐묻지 않음이라. 하여 역대의 조정은 아이 값을 돈으로 치르고 중매를 놓는 일에만 수백조를 쏟았으니, 마치 모자란 것이 연분이요 이를 수 없는 섬이 아니라는 듯이 — 그러는 동안 일하는 시간과 집값과 학원의 군비 다툼, 곧 이 환란의 진짜 톱니는 점잖게 손대지 않은 채 두었도다.

과인은 음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보다 흔하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말하노니 — 게으름이 빚은 눈속임이라. 저마다 제일 쉬운 길을 갔고, 그 길들이 모여 닿은 곳이, 아무 소중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싸움터였을 뿐이니라. 그 눈속임의 크기를 재는 법은 간단하니라. 성의 싸움을 어느 쪽으로든 온전히 이겨 보라. 주춧돌의 숫자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집은 싸지지 않고, 하루는 짧아지지 않으며, 불값은 여전히 바다를 건너가리라. 손쉬운 싸움터의 승리는, 아무 값도 없느니라.

다섯째 마디 집이 아는 것

이 글은 혼인에 관한 문서들과 함께 다니거니와, 그 인연은 걸치레가 아니니라. 「두 사람의 언약」 이 한 집의 크기에서 밝히는 바를, 이 글은 한 나라의 크기에서 밝히노니 — 시간과 여유와 나눠지 않은 마음 없이는 작정한 그 무엇도 지을 수 없으며, 격식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이치라. 열네 시간 일한 끝에 남은 부스러기 기운으로는 어떤 모양의 헌신도 닦을 수 없느니라. 그 일이 일어날 방 한 칸을 영영 가질 수 없는 두 사람 둘레에는 가정이 서지 못하느니라. 혼인의 어느 철학이든 — 옛것이든, 새것이든, 이 책들 속의 것처럼 남다른 것이든 — 그보다 먼저 오는 한 가지 전제를 모두가 나누어 가지니, 곧 집이 먼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 나라의 환란은 젊은이들이 서로에 관해 그른 생각을 골라서가 아니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품었든, 가능한 집 그 자체가 그들 발밑에서 값에 밀려 치워졌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집이 나라에 가르침 하나를 돌려주는도다. 잘 다스려지는 언약이 아는 바인즉, 탓은 혈값이요 격식이 전부라는 것이라. 집안에 자꾸 어그러지는 일이 있거든, 누가 더 그른가 재판을 열지 아니하고 — 시간표를 고쳐 쓰고, 형편을 바로잡아, 어그러짐이 멎는 것을 보느니라. 나라가 그만 못하랴. 어느 성이 죄인인가 가리기를 그치라. 형편을 바꾸라 — 시간을, 집을, 물림을, 남의존을. 그 무게를 걸어 내면, 원망이 사라지지는 않겠으나, 예상로운 사람 사이의 부대낌만 한 크기로 줄어들리니 — 그만한 크기라면, 혼인도, 나라도, 살아 넘기느니라.

여섯째 마디 바른말들에 답함

공정함이 명하는 바, 이 글을 거스르는 가장 힘센 말도 여기 적어 두노라. 배움 깊은 이들이 이끄기를, 이 나라의 낱음의 무너짐은 다만 살림 탓이 아니요 — 바뀐 기대와 바뀌지 않은 제도가 부딪친 탓이 크다 하는도다. 배움에서 사내와 같거나 앞서게 된 여인들이 어미 됄을 벌하는 일터를 마주하고, 바깥일은 곱절이 되었으되 집안일은 끝내 나뉘지 않은 집을 마주하니, 이 셈이라면 성의 다툼은 참 문제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참 문제요, 아파트가 아무리 싸진들 제 보기에 밀지는 흥정인 혼인으로 여인들이 들어서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라. 이 말에는 든든한 증거가 있고, 두 셈은 서로 밀어내지 아니하니 — 구조의 무게와 제도의 불공정은 함께 참일 수 있고, 이 나라에서는 그 둘이 서로를 더 무겁게 하는도다. 또한 이 글이 미는 처방 — 제 불, 제 농사, 제 고을 살리기 — 은 길고 값비싼 일이어서 그 열매가 온다 한들 수십 년 뒤에 오되, 일터와 가정 제도를 고치자는 이들은 더 가까운 손잡이를 가리킬 수 있음도 적어 두노라. 하여 이 글이 지키는 주장은 이것이니라. 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요 — 성은 눈길이 간 곳이요, 구조는 까닭이 사는 곳이며, 모자란 나라의 힘을 앞엿것에 쏟고 뒤엿것을 버려두는 나라는, 두 싸움을 한꺼번에 지리라는 것이니라.

백성들아, 싸움에서 고개를 들라. 무게는 너희 위에 있고, 그 무게는 옮길 수 있느니라.